

IS 미국 인질 사망 지상군 투입하나

미국내 여론 악화 조짐... 오바마 입지 축소 불가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물러(26·사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강경 대응을 주문해 온 공화당의 지상군 투입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대신해 물러의 유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물러의 가족들도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CNN 방송에 전했다. IS가 앞서 지난 6일 물러가 급요에 빠 중 1시간여에 걸친 요르단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지 나흘만에 물러의 죽음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일각에선 IS가 물러를 미리 살해하고서 그 책임을 요르단에 떠넘기고자 요르단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역선전'을 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리조나 주 프레스콧 출신인 물러는 시리아 난민을 돕고자 2012년 '서포트 투 라이프'(Support to Life)라는 터키 인도주의 구호단체에 가입해 자원봉사를 해오다 2013년 8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의 희생은 지난해 8월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9월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 11월 미국인 자원봉사자 피터 캐시 참수의 충격과 악몽을 되살리면서 IS 대처 강경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다육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의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하는 것과 맞물려 의회 내 공방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사 용원 승인을 얻어내고자 지상군 파병을 포함해 더 공격적인 대응을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제2의 중동전쟁 확산을 꺼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러 사망을 계기로 미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이 지상군 파병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력사용권 의회 승인 여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상군 투입없는 IS 격퇴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해 왔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근 약 1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오바마 17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와 퇴임하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 역시 지상군 투입 필요성을 공개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국제구호활동가 케일라 진 물러(26)가 사망했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확인했다.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하던 물러는 2013년 8월 시리아 난민을 돕다가 IS에 인질로 잡혔다. /연합뉴스

시진핑, 취임 후 첫 美 국민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민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해 방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3년 6월에 이어 국가주석 취임 후 두 번째며, 국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9월 미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주요 2개국(G-2) 정상인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국에서의 2번째 정상회담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성사된다는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이번 방문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철저한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겸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는 2년 전 두 정상이 미국에서 합의한 양국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현안과 함께 주요 국제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에 대해 방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반군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4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쪽 데발트시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탱크를 타고 반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작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3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사 발원' 中 네이멍구 호수 34% 사라져

20년새 145개 고갈...연구팀 "석탄 채굴·농업용수 사용 주된 요인"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지역 호수 가운데 3분의 1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고갈돼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 석탄 채굴과 농업·목축업 등에 대량으로 용수를 사용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관인 국립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지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 고원의 면적 1만㎡ 이상 호수 785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08개(26.5%)가 완전히 말라붙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몽골고원 호수 가운데 몽골 국경 내 호수는 전체의 17.6%(63개)가 사라졌지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지역 호수는 34%(145개)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네이멍구의 초원 지역은 전체 호수 면적 감소 원인의 64.6%가 석탄 채굴에 따른 과도한 용수 사용 때문으로 분석했고 농업·목축업 병행 지역은 관개용수 사용이 호수 면적 감소 원인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연구를 지휘한 중국과학원 광정원(方精雲) 원사는 "네이멍구 지역의 호수들이 대거 사라진 원인은 지구 온난화와 건조한 기후의 영향 이외에

핑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네이멍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자원과 광물자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가뭄이 이어지고 농업·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곳곳에 댐과 저수지를 쌓는 등 수자원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막화가 남방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교전사태 논의

오바마, 러 푸틴과 통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약 화일로를 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전사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자가 현재 논의 중인 평화협정 체결의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고 군대와 무기, 자금을 동원해 분리주의 반군을 돕는다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리는 4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연합뉴스

나선 경제특구 관문 中-北 신두만강대교 연말 개통

중국에서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관문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올해 말 개통된다.

하-원정리 두만강대교는 1936년 세워진 것으로, 심하게 낡은 데다 폭이 6.6m로 좁아 급증하는 양국 간 차량 통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진춘산(金春山) 훈춘시장은 11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착공한 취안허 새 교량 건설사업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만강대교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대교는 638m의 교량 구간과 접속도로를 합쳐 총연장 1천100m, 양복 4차선으로 설계됐다. 건설비 1억8000만위안(315억엔)은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신 시장은 "현재 두만강의 중국과 북한 쪽 양안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전에

북·중이 현재 이용 중인 총연장 535m의 취안

완공해 개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대기업 진출은 추종한 상황이지만 중소제조업 투자와 무역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나선 특구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선-하산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 시장은 "새 교량이 개통되면 나선 특구에 대한 북·중 공동 개발은 물론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을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5천	④ 전대상대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중흥동 원룸 룸12개 상가1개, 주택1개 월세 385만, 매매가 10억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울수리〉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2억, 용 6억)

염주동 상가건물 매매 3층건물 (먹거리코너) 1~2층 사무실 3층 주택 월수익 400만 (주인거주)

매매가 7억 (보 1억 용 3억)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면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억, 월수익 70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야엘가앞 3층 88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0억	

(주)대신 010-6670-9800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평수 100평 (전용 80층) 이면도로 코너 학원리모델링함 주차3대 확보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보 3천만, 월 130만

나주 상가 사무실

매매 . 임대

- ① 학원 2층 가능, 영강 초교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 (2층 2칸)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근린주택

- ① 북구 운암동 (토 273㎡, 건물 2,916㎡) 감평가 2억4천, 최자가 1억7천
- ②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3㎡) 감평가 1억6천, 최자가 1억 1천
- ③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백, 최자가 3억5천
- ④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6백
- ⑤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6천, 최자가 24억
- ⑥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자가 4억8천
- ⑦ 동구 학동 (토 169㎡, 건물 277㎡) 감평가 4억, 최자가 2억8천

근린 상가

- ⑧ 서구 치평동 (토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자가 1억3천
- ⑨ 광산 도산동 (토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자가 5천5백
- ⑩ 북구 중흥동 (토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⑪ 서구 금호동 (토 14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5백, 최자가 4억5천8백

주요소

- ① 남구 양천동 (토 1,335㎡, 건물 135㎡) 감평가 7억8천, 최자가 4억9천5백
- ②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백

토 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자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강의

〈상무점/운암점〉

실전스터디반 모집중

매주 초 개강

이제는 경매 대중화 시대 나만의 재테크 꼭 준비필요!!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실전

직장인반 (저녁7시)

상무점(한국경매학원)

- 수요일 오전10시~12시(저녁7시)
- 평생실전반
- 입찰부터 임대매매, 건축(개발), 리모델링까지

운암점(대한경매학원)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7시~9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010-6832-9700
062-382-5500